

# 리아호나



# 리아호나



### 앞표지

그리스도상, 베르텔 토르발센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뒷표지 삽입 사진 촬영: 에미사 하퍼,  
화보집 The Mission 중에서



### 친구들란 표지

그림: 세리 리 보이어 도티,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

## 일반

- 2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 25 방문 교육 메시지
- 42 한 영혼의 가치 마빈 케이 가드너
- 48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활용하기

## 청소년란

- 26 말일성도의 소리: 그분의 돌보심을 믿으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글로리아 올레이브  
데이비드가 안내한 길 세르지오 아로요
- 30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친구들

- 2 부활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 4 함께 나누는 시간: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다이앤 에스 니콜스
- 6 친구 사귀기: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의 노베르토 하리자오나 아니타 에프 보트
- 9 노래: 성스러운 숲 조안 디 캬벨과 홀 케이 캬벨
- 10 신약 성서 이야기: 사도들을 선택하시는 예수님
- 14 이야기: 말씀 티 에스 헤팅어



30쪽 참조



친구들, 2쪽 참조

2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할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헤이트, 날 에이 맥스웰, 래셀 엠 벨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래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쉰슨

**고문:**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엠 매드슨, 알렉산더 비 모리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엠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홀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너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펬

산인 디자이너: 세리 록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리 에이 코치, 데니즈 키

벌, 엘리 프랫, 로널드 에프 스파크스, 클라우디아 이 와너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마린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디블류 브리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421호, 제38권, 제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리-3166

발행일: 2001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2232-1441, ☎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1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알라리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와이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카리비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pril 2001 No.4. LIAHONA(USPS 311-480) Kor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선교사들**

딸과 저는 리아호나(우크라이나어판)를 읽고 있습니다. 이 잡지를 통해 현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지구 곳곳에 살고 있는 회원들의 생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그들 앞에 놓인 역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 제 마음은 기쁩니다. 순수한 마음과 큰 신앙과 많은 사랑으로, 그들은 모든 가정과 모든 가족에게 가서 중요한 사역을 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가 경전과 그들의 개인적인 모범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다 잘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봉사의 모습은 우리의 눈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즐겁게 해줍니다.

레오나드 스테파노비치 시콜니,  
우크라이나 키예프 스비아토신스카 지방부,  
비노라다스카 지부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리아호나 독자들에게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입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친절과 인내와 보호와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문제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역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치 달이 어두운 길을 밝게 비추어 볼 수 있게 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왕국에 이르는 길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팔을 벌려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

리와 함께 이 밝은 길을 걸어가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 루제바,  
불가리아 플로브디브 지방부,  
스타라 자고라 지부



**리아호나에서 위안을 받고**

저는 여덟 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교회 회원이었으며, 이것은 교훈적인 메시지들 덕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아호나(불어판)를 통해서, 저는 커다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충실한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로 인해 확신과 위안을 받습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친구들을 보면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종종 저는 제가 세상으로 들어오라는 그들의 요구에 저항할 힘과 용기를 갖고 있는지 의심합니다. 리아호나에 실린 젊은이들의 진실한 간증들은 제게 힘을 줍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진리 안에서 소망을 갖고, 복음을 실천하며, 높은 원리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러한 도움에 매우 감사 드립니다. 리아호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나침반입니다.

바야나 마타오야,  
타히티 아루에 스테이크,  
아루에 와드

편집자 주: 당 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대판장단 메시지를 대신합니다. 가정 복음교사들은 4월 중에 이 메시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에머슨 험퍼

#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다음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비디오 발표 자료에서 하신 말씀의 전문입니다. 이 말씀들은 2000년 4월 1일과 2일, 연차대회 모임 중에 인공 위성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이 위대한 고대의 도시 예루살렘, 저에게는 늘 영감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천년 전, 인류의 구세주께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아기에 부모의 품에 안겨 이곳 성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시므온과 안나로부터 세상의 구세주가 될 운명을 타고난 이 어린 아기에 대해 놀라운 예언



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12세에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의 모친은 이곳 성전에서 그가 박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그에게서 듣 기도 하고 묻기도”(요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2:46)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도시를 바라보며 슬픔에 차서 다음과 같이 말한 곳도 이곳 근처였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태복음 23:37)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의 마지막 며칠을 보낸 곳입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겐세마네에서의 고뇌, 체포, 재판, 사형 언도, 십자가에서의 형언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 등을 겪으셨으며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삶과 장엄한 죽음, 그분이 인류에게 주시는 은사의 보편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백부장이 외쳤던 말을 우리도 외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가복음

15:39)

이제, 그분이 베들레헬에서 탄생하신 지 2천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지금이야말로 그분을 기억하고 재다짐할 때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그분의 신성을 증거할 15명의 특별한 증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부름은 특별한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름 받고 위임 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도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분이 실제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증인들의 간증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그분의 전세와 현세, 그리고 내세에서의 성역에 대해 간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세상의 구속주, 인류의 구세주, 생명과 평강의 왕, 거룩한 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 전세에서의 성역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웅장한 천체 망원경은 스모그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하들을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렌즈로 봐야 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을 좀더 명확히 보고자 한다면 우리도 자신을 세속적인 스모그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주에 찼”음도 알게 됩니

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50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우주적인 복음을 접할 수도, “만물을 사실대로”(야콥서 4:13) 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없는 우주를 봄으로써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위대한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 나사렛 예수로 알려지기 오래 전에 우리의 구세주는 여호와이셨습니다. 그 오래 전

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무수한 세상을 지으신 우주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지구는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3:9; 히브리서 1:2 참조)

사람이 사는 행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주에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행성의 하나님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참으로 우주의 주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교리와 성약 76:24)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속죄에서 그분의 속죄 희생의 피로 우리를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언젠가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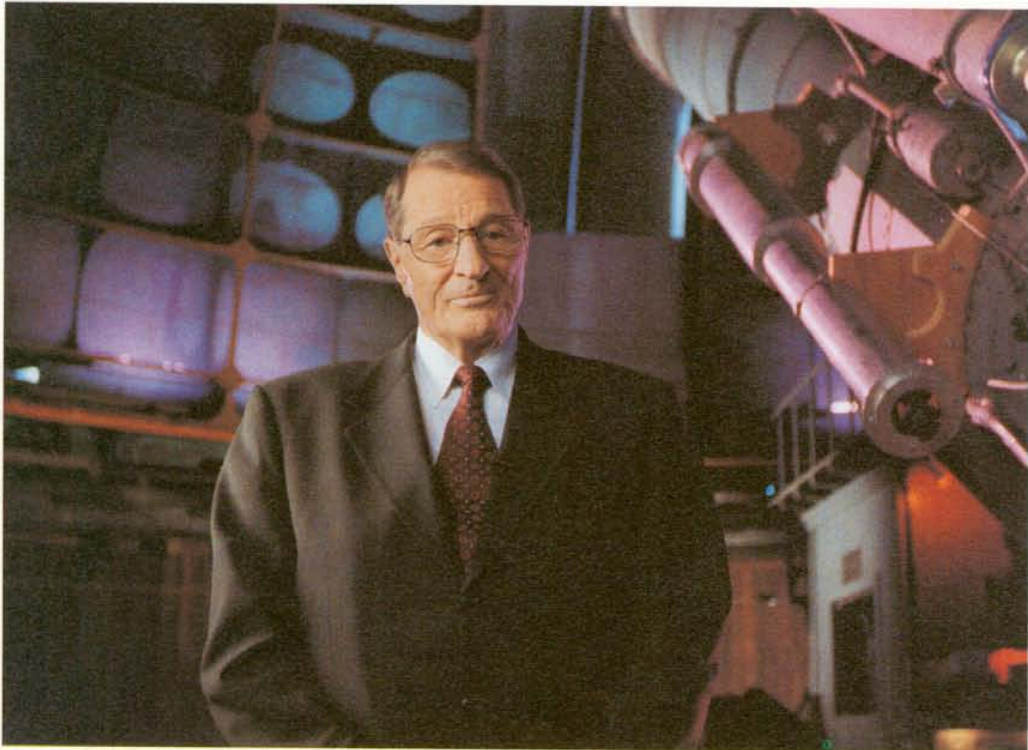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때인 훗날 그 심판의 때가 오기 훨씬 이전인 지금에도 앞서 우주에 관해 이야기한 사실들은 우리를 무릎꿇게 만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기할 곳이 많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살게 될 가장 용감한 자들과 더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소망에서 창조자요, 율법을 세우신 자로

서의 역할을 완수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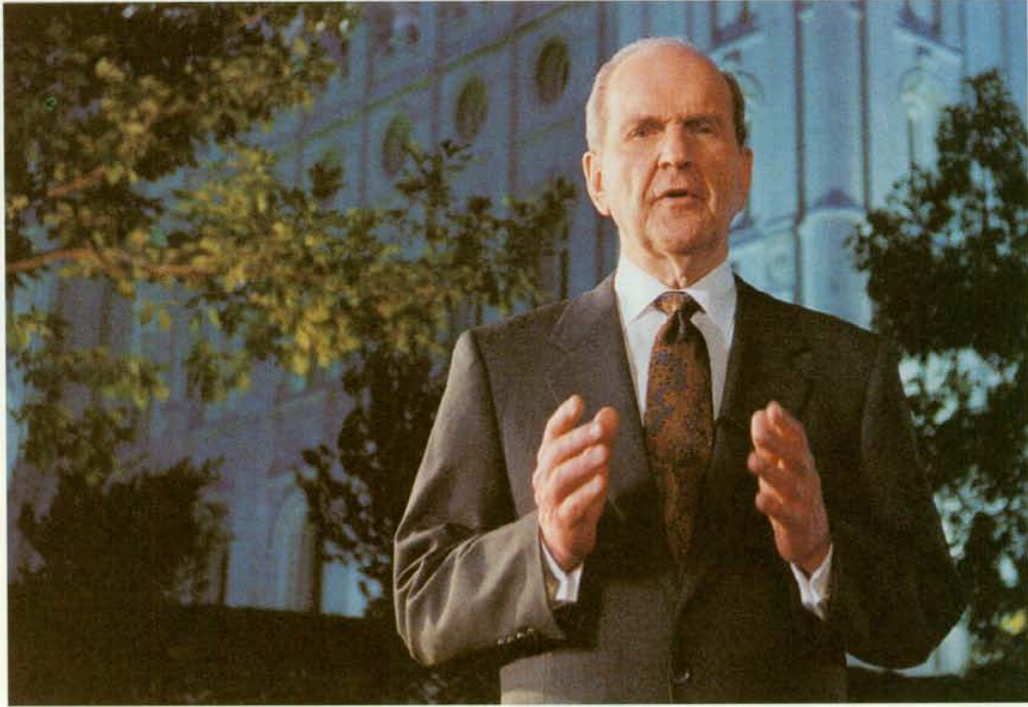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유에 누인 연약한 아기로서가 아니라 모두가 알아보는 구속주이자 우주의 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바, 그분에 대한 증거로서 별들이 떨어질 것이며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별들이 내려 보[던]” 것 이상의 장관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광활한 창조물 가운데서 참새 한 마

캘리포니아 산호세 외곽에 위치한 해밀턴 산 정상의 리크 관측소에서 말하는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에서 말하는 러셀 엠 넬슨 장로

리의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는 우주의 주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세주이시라는 사도로서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약 4천년 전 그리스도 예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신 것을 되새겨 봅니다. 그 성약에는 세상의 구세주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오시리라는 것과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하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성약은 “천 대”에 걸쳐 이루어질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권능은 너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아브라함 2:11)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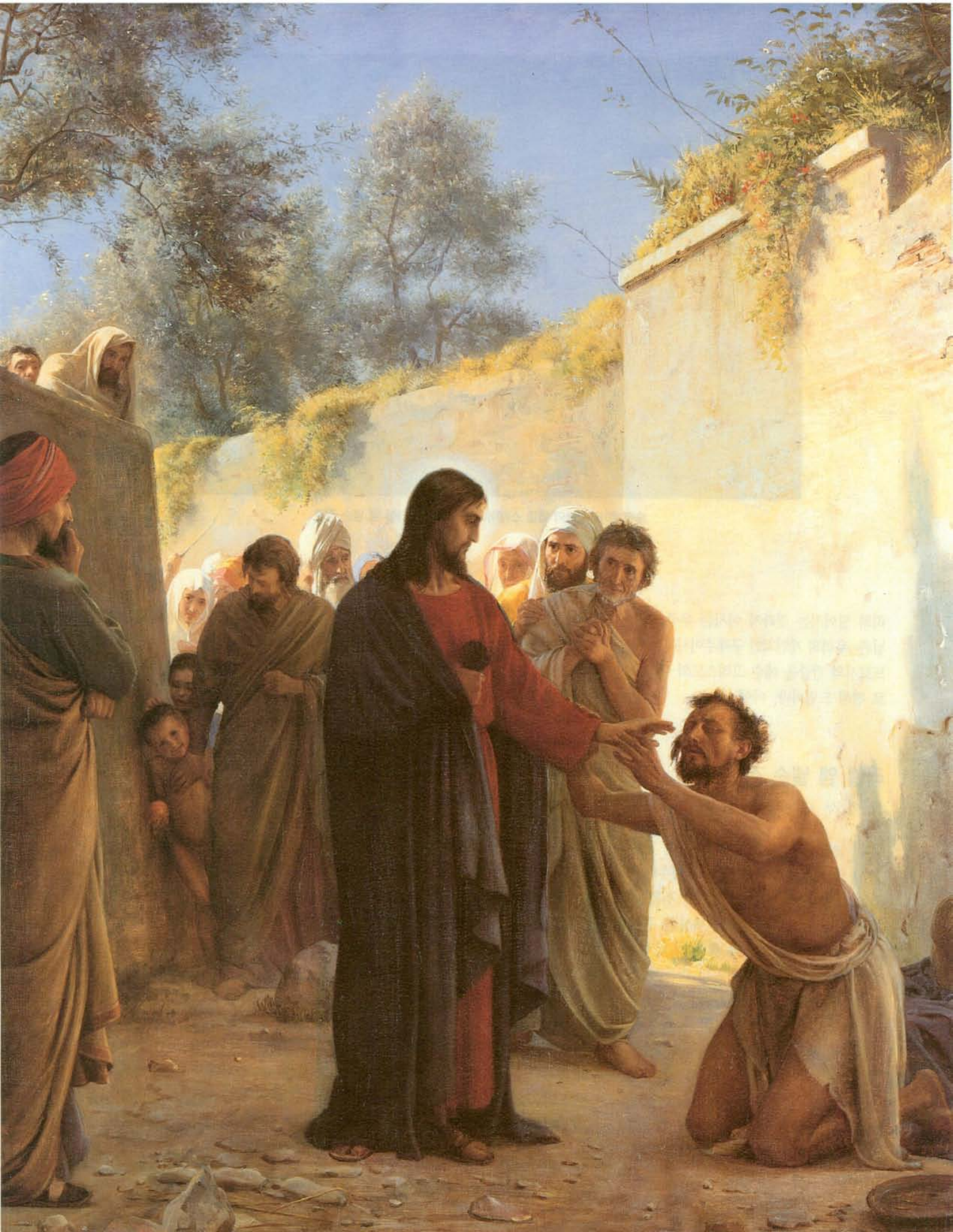
우리는 경전에서 이 성약이 “[말]일에 이루어지리라”(니파이일서 15:18)는 것을 압니다. 그때 충만한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게 될 것입니다.

1836년에 “아브라함의 복음”(교리와 성약 110:12)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1843년에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에 대하여 약속을 받았나니 … 이 약속은 또한 너희 것이니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속하였”(교리와 성약 132:30~31)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충실한 혈통에게 약속된 이 천상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업적과 혈통, 즉 축복사의 축복에 언급된 혈통을 통해 그분

의 신권의 축복과 책임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당한 상속자요, [여러분의] 생명과 신권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혈통을 통하여 반드시 보존되어야만”(교리와 성약 86:9~10) 합니다. 아브라함의 성약의 궁극적인 축복은 거룩한 성전에서 주어집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나아와 왕위와 왕국과 권세와 나라와 통치권을 상속 받고 “승영에 이르러 온갖 일에 영광을 누리”(교리와 성약 132:19)게 해줍니다. 고대에 주어진 아브라함의 성약의 성취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및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업이요 영광입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에 대해 간증하고 그분께 저의 영원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현세에서의 성역

###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2천년 전, 두 사람의 여행자, 즉 한 남자와 여자가 소도시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은 나사렛에서 오는 길이었습니다. 긴 여행은 그녀에게 몹시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여행객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바람에 그 도시의 모든 여인숙과 방들은 만원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거처로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가축 우리였습니다.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태양과 달과 물결 굽이치는 바다의 창조자께서 지상에서 가장 초라한 환경에서 강보에 싸여 누워계셨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토록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영감에 찬 부분은 구약전서와 몰몬경의 예언자들을 통한 알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계획과 인류를 구원하는 데 주님께서 담당하실 큰 역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울리는 가운데 목자들이 들관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에 관해 들었던 일,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왔던 일들 등, 이러한 영감 어린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구

세주를 사랑하고 더욱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탄생이 그랬듯이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열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사야서 53:3)였던 그분에게는 머리 돌 곳이 없었습니다. 메달과 세상적인 부에 영광과 명예가 뒤따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집도,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외로운 한 사람이 역사

와 영원의 길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의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에게 간증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에 이르는 길, 평화에 이르는 길,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지상을 거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얻으려는 갈망과, 고통과 슬픔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갈망, 그리고 그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말씀하는 조셉 비 워스린 장로



들이 지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하려는 갈망으로 그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으로 그분의 눈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병고침과 평화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구세주의 사랑에 찬 눈을 바라보게 될 때가 오리라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만큼 큰 슬픔도, 깊은 고통도, 감당하지 못할 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의 침례탕 앞에서 말씀하는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서 배우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하도록 당부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분께로 나아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사건의 신성함을 잊지 않고 그분의 탄생을 경축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 리 모두는 자신이 침례 받고 성신을 받은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

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즉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기 위해 하신 일들의 총만한 의미가 커감에 따라 그 의식은 점점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인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왔거나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행복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한 뒤에 그 특권을 선택했습니다.

침례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실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필요한 의식을 모두 받은 사람들만이 지상에서 총만한 기쁨을 얻고 해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총만한 축복을 받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대리로 침례 의식을 받는 이유입니다. 주님 자신도 “모든 의를 이루”(마태복음 3:15)시기 위해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범사에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저는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으로 완전한 사랑과 연민을 지니셨음을 간증 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고 구원의 모든 의식을 받음으로써 영원히 그분과 하





슬트레이크시티에서 말하는 엘 톰 페리 장로

나님 아버지, 또 자격을 갖춘 우리의 사랑 하는 자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엄숙히 증거합니다.

##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구세주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으로 비롯된 기쁨을 상기시키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2차 대전 직후 평화 협정 조인에 이어 일본에 처음 상륙한 해병 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가사키 시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도시의 대부분이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매장되지 않은 시신도 있었습니다. 주둔군으로서 우리는 본부를 세우고 작업을 하러 나갔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암울하였으며, 우리 가운데 더 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대 군목을 찾아가 교회 건물 재건을 도와도 좋다는 승낙을 요청했습니다. 전쟁 중 정부의 제약 때문에 이

교회들은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건물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한 그룹은 비번일 때 자원해서 이 건물을 수리하거나 회반죽을 다시 발라서 예배 모임을 다시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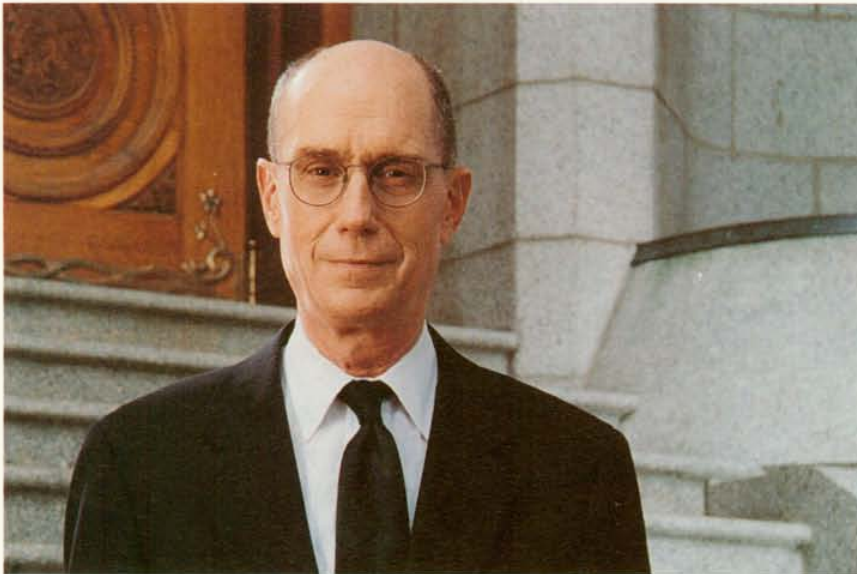
우리는 일본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건물을 수리하는 육체적인 노동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기간 동안 성직을 수행할 수 없었던 성직자들을 찾아서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이 다시 기독교 신앙을 수행할 자유를 또다시 경험할 때 이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국으로 가기 위해 나가사키를 떠나려 할 때 제가 항상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고국으로 데려다 줄 배가 있는 곳까지 운행하는 기차에 오를 때 다른 많은 해병들이 우리를 놀렸습니다. 그들은 배웅 나온 여자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롯하며 일본에 있는 동안 재미는 다 놓쳐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노동과 벽에 회칠 하는 데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놀리는 정도가 극에 달했을 때, 기차역 근처에 있는 작은 언덕 위로 우리가 수리를 해준 여러 교회의 일본인 회원 2백 명 가량이 “주 예수의 군병들”을 부르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역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길을 따라 길게 늘어섰으며 기차가 떠날 때 우리는 손을 뻗쳐 그들의 손가락이라도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표현을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전쟁 후에 한 나라에서 작은 방법으로 기독교 활동이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압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온 인류를 위한 속죄 희생이 되게 하셨으며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압니다. 저는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성역을 통해 이 지상에 복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지시하셨음을 압니다. 저는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기쁨과 행복은 구세주를 따르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솔트레이크 성전의 동쪽 계단 앞에서 말하는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건물의 동편 벽에는 “주님의 집”이라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 이 성전에 몇 발자국을 들여놓았을 때, 저는 전에 이곳에 와본 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득, 저는 그 느낌이 이 생이 전에 느꼈었을 그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느낌인 것 같은데, 그것을 인식하는 한편 거의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평화를 느꼈으며 이제 다시 그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헌납된 성전은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오실 수도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세에서 그분과 함께 누렸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생에서 우리를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잘 지키기만 하면 내세에서는 우리를 우리 가족과 함께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데려다 주게 하는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부분과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대한 구세주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느날 이 성전의 높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건물이 헌납된 뒤 기본 사람이 거의 없는 탑실 한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용된 적이 거의 없는 조그만 방에서 저는 개척자들이 만든 아름다운 목조 부분을 보았습니다.

저는 작업자들이 세세한 물딩 부위까지 주의 깊게 조각하고 마무리 지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전기 공구도 없이 대개 사랑하는 주님과 하늘에 계신 분들만이 보게 될 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백성들에게 자신과 가족이 인도되고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바치기에 합당하게 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그분의 예언자였으며 초기 성전의 창문 모양뿐 아니라 온 땅에 성전들이 세워지게 될 것도 시현으로 보았음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깊은 친절로

이 여러 성전에서 행사된 신권의 열쇠를 그의 종들에게 맡기시며 우리와 우리의 돌아가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한 일들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며 그것은 제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경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에 대하여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분의 생애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고양시키고 고무하고 강화시키는 내용이 많습니다. 모든 경전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장은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기도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세상이 아버지를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은 명하신 모든 일을 다 수행했다고 아버지께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세주께서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셨는가를 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께 대한 순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 돌보신 일, 제자를 부르신 일, 팔레스타인과 미대륙에서 가르치신 일, 이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개인적인 목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얼마나 완전한 순종의 모범입니까!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구세주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와서 나를 좇으라”(마태복음 19:21)라고 하신 그분의 단순한 권고는 우리가 그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킨다면 그분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구세주의 성스러운 증인으로서 간증 드리는 기회를 갖습니다. 저의 가장 큰 바람이라

면 제 간증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오늘날 예언자를 통해 계시로서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고 지시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면 그분은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이 필멸의 기간이 지난 후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우리 각자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리고 증거합

니다. 아멘.

##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 해 전, 김볼 대관장님께서 저를 성전으로 부르셨던 때를 종종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서 바빴을 때인데 그 분은 저를 성전 4층에서 만나자고 전화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이트 형제님,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대관장님.” 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김볼 대관장님께서 왜 거기에서 저를 보자고 하시지는지를 물론 몰랐지만, 성전으로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 분은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작은 방으로 저를 데려가시더니 저의 합당성에 관해 집견을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그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몹시 놀랐습니다. 제가 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이 일어서시는 몸짓을 하셔서 저도 그 훌륭한 분과 함께 일어서는데, 그 분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온 사랑으로 형제님께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을 채우시도록 부름을 드립니다.” 그 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나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유타 바운티풀 성전 뜰에서 말씀하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또 생각했습니다. 그 분은 “교회의 대관장으로”나 “예언자로서”, 또는 “나의 권능으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늘 보여주셨던 아주 겸손한 자세로 “저의 온 사랑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저에게 사랑이야말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랑이란 구세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기를 바라셨던 사랑, 우리가 보여 주고 나타내어야 할 사랑, 그리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영혼에 품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간증할 때 저는 주님이 실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

님은 그리스도요 육신을 입은 독생자라는 그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것이 참되다는 사실에 대한 저의 간증과 증거와 지식과 마음에 타오르는 뜨거운 느낌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역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주의 만찬인 성찬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은 빵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반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마태복음 26:26)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9)

그분은 잔을 들어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

주의 만찬인 성찬은 침례 성약과 축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와 성찬을 취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빵을 취할 때,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성약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청결하게 하는 침례의 효력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청결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집행하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성약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말일성도의 안식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독생자의 피를 기억하여 행합니다. 그분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주님의 탄생 2천년을 경축하는 금년에, 주님의 다른 사도들의 간증에 저의 간증을 더합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본부 건물에서 말씀하는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솔트레이크시티 요셉 스미스 기념관 안에 위치한 예배당에서 말하는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와 살고 최고의 축복, 곧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사인 영생까지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루살렘 감람산에 있는 이곳 작은 감람나무 숲만큼 거룩하고 중요한 곳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필멸의 존재로서의 그 마지막 밤에 사도들을 떠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한 속죄 희생이라는 깊은 고뇌 속으로 홀로 들어가신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천천히 움직여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분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가복음 14:36)

생각 깊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단 한 사람이 자발적이고 자비로운 희생을 통해 무한하고 영원한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

고 온 인류의 잘못을 속죄하며 모든 인간적인 결점을 감내하고 모든 인간적인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상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도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행하신 일임을 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하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증 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연민이 담긴 토대요 핵심이 되는 사실임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을 조용하고 경건하게 걷는 것이 이상한가? 이곳에서 보여진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 것이 이상한가?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오면 고통받지 않게 하시려고 움츠리지 않고 그 쓴 잔을 드셨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저는 저의 경이로움과 경외심, 그분에 대한 칭송과 사도로서의 증거를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예루살렘 성 밖, 이곳이나 근처 어딘가에 주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장사한 지 삼일 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

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태복음 28:1~2, 5~6)

이것은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보편적이고 최종적인 죽음은 이제 정복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린도전서 15:55)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실재하셨습니다. 죽어서 시신으로 누워있던 그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도마가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고 놀라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시이

다”(요한복음 20:28)라고 외쳤던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망 없는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생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생애와 사명 가운데서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절정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그분의 생명 희생은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의 확신을 갖고 그분이 무덤으로부터 나오지 않고서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모든 승리 가운데,

동산 무덤 앞에서 말씀하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그 첫번째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서 나오신 주님의 승리만큼 위대하거나, 그 효과면에서 보편적이거나, 그 결과면에서 그렇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건의 증인이 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모든 사람들은 가장 위대함이 기적의 실재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신성한 사건의 진실함을 외치며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이 모든 간증에,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삶과 죽음의 주인으로서 다시 경이롭게 부활하셨다는 간증을 더합니다.

##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세주께서 처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마가복음 15:16)라고 사도들에게 책임을 주셨을 당시, 그분의 교회는 매우 작았고 회원들은 현재 중동으로 알려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및 바울과 같은 열성적인 사도들은 대부분 도보나 배로 여행하면서 소수의 회원들을 단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먼 거리와 통신 수단의 부족으로 그들의 일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은 장차 복음의 가르침으로부터 “배도하는 일”(데살로니가후서 2:3)



해리 엔더슨의 작품 “그러므로 나아가 온 나라를 가르치라”를 확대한 그랜드 롬니 클로슨의 작품 앞에 선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한 복음이 온 세상에 회복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1820년 봄에 하나님 아버지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내신 것을 시작으로 하여 복음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간증 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이후로, 90명 이상의 사도가 옛 사도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임무,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가르치는 임무를 지니고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가장 먼 지역까지 우리의 임무가 미치게 해준 제트 여객기와 놀라운 기술로 인해, 우리의 일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1820년 이후, 75만 명 이상의 전임 선교사들이 100개 이상의 언어로 전 세계 137개 국가 또는 영토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하며 봉사해 왔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이 전진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에게 간증 드립니다. 우리의 선교사들

이 겸손하고도 진지한 간증을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에 의해, 그리고 주님을 통해 서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저는 50년 전 영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이 사업과 구세주의 신성의 참됨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드리기에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신성한 경험들을 통해 오늘날 그것들을 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의 것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하고, 뛰어나시고, 권세와 존귀와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신 그분께서 앞장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상으로 그분을 더욱더 깊이, 그리고 강렬하게 사랑합니다. 그분은 저의 주님이요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저의 친구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날 그분의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한 사업은 온 세상을 채울 때까지 굴러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 내세에서의 성역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1836년 4월 3일, 이 방에서, 2천년 전 이전에 주어졌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자 말라기에 의해 주어진 구약전서의 마지막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5~6)

모로나이 천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많은 경전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구절이 교리와 성약 2편에 별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1836년 그날,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 방에서 무릎을 꿇고 엄숙하고 조용한 기도를 드렸으며, 요셉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견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 계시더라.”(교리와 성약 110:1)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 후에 모세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열쇠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

를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똑같은 말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교리와 성약 110:16)

오늘날 놀라운 사업, 즉 가족을 영원히 단합시켜 주는 가족 역사 사업과 성

전 사업이 진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 파괴 현상으로 세상이 침몰해 가고 있지만, 이 사업은 온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이 사업은 신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서 이곳에 오셔서 이 사업의 열쇠를 준 예언자 엘리야를 소개하시면서 친히 알려주신 사업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이 사업이 신성한 사업으로서, 인간의 두뇌로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말씀하는 패커 회장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었음을 간증 드립니다. 이 사업은 참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이 교회를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 드립니다. 아멘.

##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 관 장 단 제 2 보 좌

우 서 깊은 나부의 이 성스러운 땅에  
우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

도시는 설립자인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따서 요셉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뉴욕 주 팔마이리에 있는 성스러운 숲에서 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가운데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 더 많은 영적 진리와 열쇠와 권능을 이 지상에 가져온 그의 생애는 하나의 경전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기에 있었던 많은 중요한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웅장한 성전이 이곳에 건립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경륜의 시대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이

었습니다. 나부 성전은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마련하신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나부 성전의 이 거룩한 초석들 위를 걷는 동안 저의 영혼은 압도되었습니다. 성전이 폐쇄되고 성도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살다시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증조부 모인 존과 제인 에이컬리는 1846년 2월 3일에 이 장엄한 건물에서 성전 축복을 받은 마지막 사람들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왜

요셉의 도시 —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말씀하는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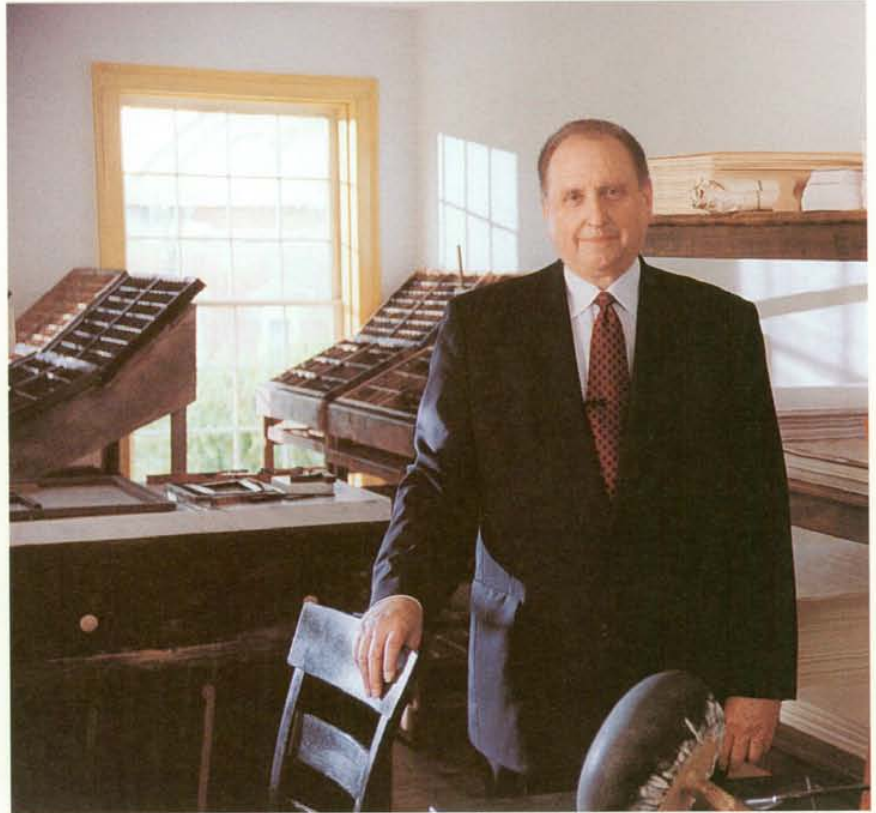


냐하면 존 에이컬리가 윈터 쿼터스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이 장엄한 성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건립될 것입니다.

이곳은 성전 침례반이 있었던 곳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은 침례와 다른 의식들에 달려 있으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제 믿음을 강하게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생의 껍데마네 동산에서, 또 자주 저의 현재의 부름을 수행하면서, 저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에 가서 겸손한 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종 저는 번민에 찬 마음으로 가서, 생명 자체보다 더 감사하게 된 이 사업에서 저를 붙잡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간구하였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번민으로 인해 끔찍한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사탄과 싸우기도 했지만, 따뜻하게 감싸주는 주님의 영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는 저는 자신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의 무게와 자신이 부족하고 보잘 것 없다는 자신감 상실과 덧없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기도 했으나, 그런 뒤에는 백 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수십 번도 더 영적인 시나산에 올랐습니다. 제가 마치 정말로 변형의 산에 올라가는 것 같거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면전에서 강한 힘과 권세를 느



뉴욕 주 팔마이라의 그랜딘 빌딩에서 말하는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떤 특별하고도 성스러운 느낌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가까이에 함께 하며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거룩한 사도의 부름을 받아 봉사하면서 저는 자신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별한 은사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거룩한 구세주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형언할 수 없는 속죄의 고통을 통하여 저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활의 기적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각자를 위해 그분이 치루신 대가에 놀랍니다.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피 방울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분에 대한 저의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 관 장 단 제 1 보 좌

뉴욕 주 팔마이라에 위치한, 아름답고 정확하게 원상 복구된 그랜딘 빌딩이 보입니다. 그랜딘 빌딩을 복원하는 목적은 “그 당시의 건물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방문자들이 당시의 역사 속에 빠져 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물문경 초판을 인쇄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초판 발행 부수가 총 5천 부였는데, 이 숫자는 시골에서의 인쇄업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주문량이었습니다. 이 비 그랜딘 씨는 뉴욕으로부터 스미스 특허권이 있는 개량 인쇄기를 구입했습니다. 그 기계는 당시의 다른 인쇄기보다 성능이 좋은 것이었으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 하여금 집에서 더욱 가까운 곳에서 물문경을 인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문명에서 가장 놀라운 발명품 중의 하나



인 일명 활자의 출현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역사를 돌이켜 봅시다. 구텐베르크가 활자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을 한자 한자, 한줄 한줄, 한쪽 한쪽, 깃촉펜으로 썼습니다. 그랜딘 씨는 활자로 몰몬경을 인쇄했습니다. 조판은 활자면, 활자체, 크기 등을 기억과 경험으로 익힌 숙련된 식자공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지리한 작업이었습니다. 한쪽의 조판이 끝나면 잉크를 칠해 인쇄를 하고 제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책을 모든 곳에 배부할 수 있을 만큼 인쇄술이 발달한 시기에 몰몬경을 출현시키셨습니다. 현재의 인쇄기는 교회가 매년 수백 만 부의 몰몬경을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래 전 미국의 한 남부 지역에서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테이크 대회가 끝나고 나서 한 자매님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텔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님을 아십니까?” 저는 제가 그분과 함께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텔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님의 증정하는 글과 서명이 담긴 몰몬경 한 권을 제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책이 스테이플리 장로님이 젊은 선교사 시절에 그녀의 할머니에게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스테이플리 장로님께 돌려 주시면서 할머니의 수백 명이나 되는 후손들이 이 책으로 인해 개종했고 이제 몰몬경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서명된 몰몬경을 스테이플리 장로님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디서 어떻게 그 책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자신의 서명을 조용히 살펴본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저는 몰몬경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이곳 구모라 언덕에 서서 한 농촌 소년 예언자가 캄캄한 밤에 마차를 몰아 이 언덕까지 달려와서, 천사 모로나이로부터 고대의 기록을 받았던 1827년 9월 22일의 중대한 사건을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것

#### 구모라 언덕에서 말하는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젊은이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천년 간의 역사를 서술한 기록을 번역하여 대중에게 배부할 몰몬경을 준비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러한 성취로 인해 비열한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나약해지지 않았으며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과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판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손에 안전하게 보관되었고 약속된 대로 천사가 다시 금판을 가지러 왔을 때 나는 천사에게 이를 내어 주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60)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은 문자 그대로 수백 만 명의 방문객을 불러들이며, 그들 대부분은 구모라 언덕 야외극을 보러 옵니다. 방문객들은 자주 호기심에 차서 옵니다. 그곳을 떠날 때 그들은 주님의 영에 의해 감동 받은 영혼을 안고 갑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증거입니다. 그 메시지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며 그 독자들에게 진리를 알려 줍니다. 그것은 고대의 읍에 의해 가장 잘 표현된 날카롭고도 우주적인 다음 질문에 대답해 줍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읍기 14:14)

여러 해 전, 저는 로버트 윌리엄스라는 한 젊은이가 숨져가는 자리에 초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두 아이들이 그 곁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연한 듯 보이려 했으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자리 옆에 몰몬경 합본이 보였습니다. 저는 책을 들어 훑어 보았습니다.

문득 저는 별 힘 들이지 않고 몰몬경에 있는 엘마서 제40장을 펴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로버트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보라 천사가 내게 일러 주셨으니 모든 사람의 영이 그의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그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이나”

(엘마서 40:11~12)

부활에 대해 계속 읽어 내려가는 동안 로버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미소는 그의 입술을 아름답게 꾸며 주었으며, 그의 지치고 병든 몸은 잠들었습니다. 저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으며 다시 그들을 만난 것은 그의 장례식에서였습니다. 소중한 기억들이 많지만, 한 젊은이가 진리를 간구한 끝에 몰몬경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었던 그날 밤이 더욱 기억납니다.

경전을 읽은 것은 저였지만, 그곳을 펼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사도로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그분과 아버지께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음을 간증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이 이곳은 성스러운 숲입니다. 온 세상의 말일성도들은 이 신성한 땅을 성스럽게 여깁니다. 이곳은 그 모든 것,

성스러운 숲에서 말씀하는 힝클리 대관장





즉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이 위대한 사업의 기적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곳은 첫 번째 시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서 2:17)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십니까? 바로 이곳에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그분의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하고 힘찬 증거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던 커튼이 이제 다시 열렸습니다.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복음 경륜의 시대가

열리면서 다른 놀라운 계시들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 티끌에서 나는 목소리로 출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원래 생존해 있던 그의 사도들에게 주셨던 거룩한 신권이 이제는 부활한 바로 그 사도들에 의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세우신 교회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참된] 증인들”이 열쇠와 권세를 가지고 왔으며, 그렇게 회복된 교회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오랜 배도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영광스러운 새벽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조용한 나무 숲, 가장 거룩한 이곳에서 신의 실재가 다시 알려졌습니다.

흔타치지 않고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은 이곳에서 주어진 계시와 앞으로 올 많은 계시를 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때로부터 열다섯 번째인 저는, 그에게 주어졌던 예언자의 외투를 걸치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기록한 사건들, 즉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신성함을 증거해 주시고, 아들이 소년 예언자에게 지시하셨으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주께서 “매우 기쁘게 여기”시는 “유일하고 참된 살아있는 교회”가 “온 땅 위에” 세워졌음을 간증 드립니다.(교리와 성약 1:30)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주인 그의 아들에 대한 실재와 개체성에 대해, 저는 엄숙하고도 경건한 증거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신의 권세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고든 비 힙클리 대관장

저의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분의 고무적인 위임과 그분의 신성한 사랑은 우리 모두가 이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저는 하나같이 충실한 이 형제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임무든 주저없이 수행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분은 교회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우편에 서서 이 사업을 인도하십니다. 이 일을 하도록 그분으로부터 권능을 위임 받은 사도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분은 살아 계시고, 다시 오셔서 왕국을 주장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리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사도로서의 간증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키움

**당**시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던 스티븐 디 네이돌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한 스테이크장과 저는 ... 어느 젊은 자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그 자매는 교통 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린 두 자녀와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매가 ... 화가 나 있고 낙담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녀는 쾌활하고 침착했으며 친절하고 정중했습니다. 그 자매는 우리가 방문해 준 것에 감사했으며 ...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구원의 계획을 믿고 있음을 형제님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약속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하신 구속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팔로 감싸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과 선행”,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82쪽)

이 자매의 겸손한 말은 구세주를 믿는 신앙이 어떻게 두려움과 의심을 희망과 용기로 대체해 주는지 나타내준다.

### 신앙이 필요함

불확실한 오늘날의 세상에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재난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 시기에도 영적인 화평을

얻을 수 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1899~1994)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을 때, 이렇게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8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복음의 첫번째 원리이다.(신앙개조 1:4 참조)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에 맞서고 유혹을 극복할 힘을 받는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게 합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리하다.”(모로나아서 7:33)

### 신앙을 키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하고 연습한다. 신앙을 발전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

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7)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그저 교리에 관한 말씀을 듣기만 해도 신앙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작은 씨앗 하나가 영이 일하게 합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미치는 권세”,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86쪽)

신앙의 씨앗이 일단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잘 길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하며 깊이 생각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고 성약을 지킬 때, 또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며, 계명에 순종할 때 길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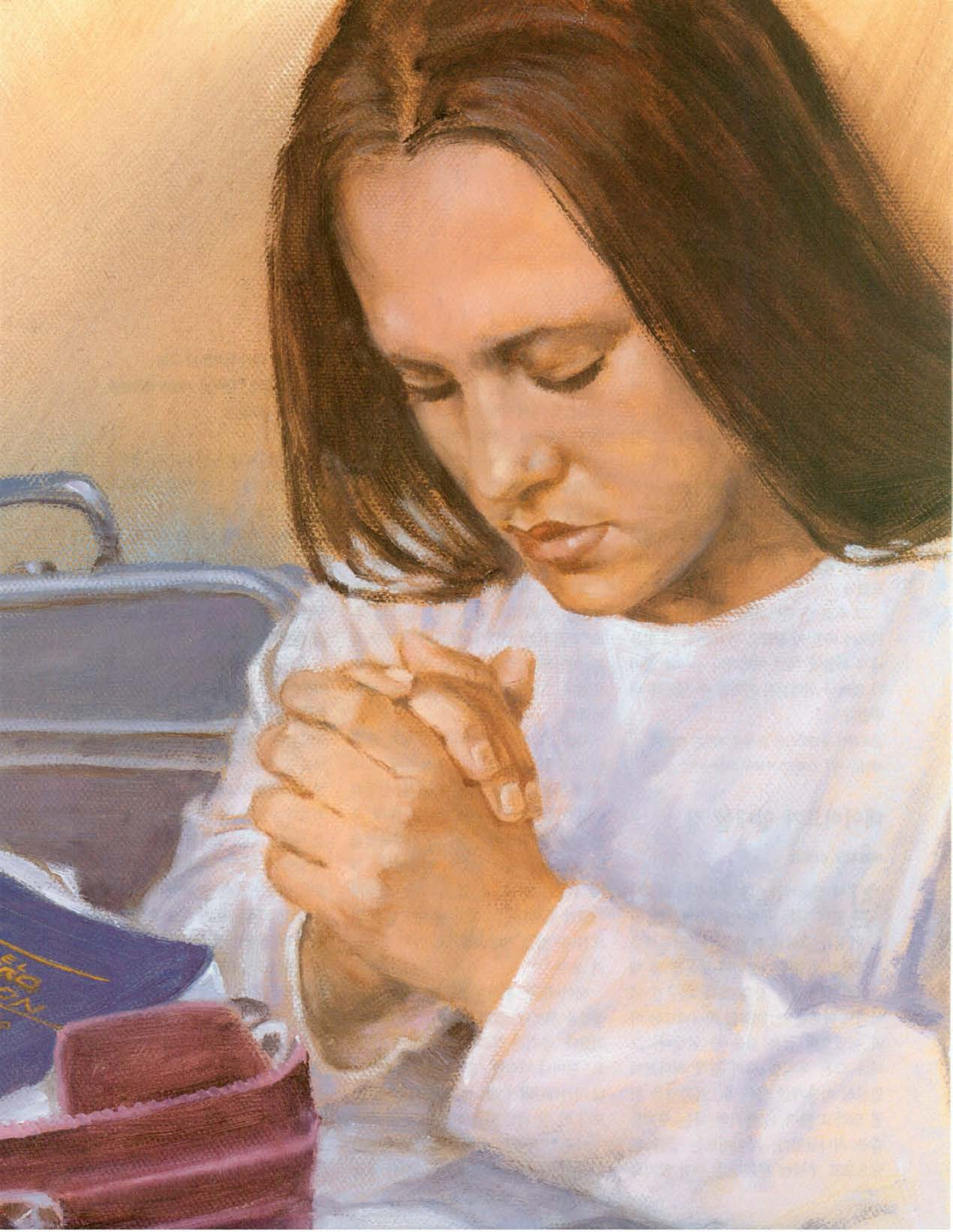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강해질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인 셰리 엘 듀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마음과 양심에 평안을 느끼도록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유일한 기회”,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78쪽) □













닥 크기의 작은 지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몇 년 전, 그 지갑 안에 돈을 넣어 두었던 일이 기억났다.

지갑을 열어 보니—이럴 수가! 그 안에는 몇 년 전에 내가 넣어 둔 돈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다. 두 사람이 산티아고까지 여행하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나는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던 아버지께 선교사 훈련원까지 같이 가달라고 부탁 드렸다.

그 후로 수 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기도에 대한 이 응답을 기억한다. 그 일은 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세와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클로리아 올레이브는 뉴저지 패터슨 지방부 패터슨 제1 스페인 지부의 회원이다.

## 데이비드가 안내한 길

세르지오 아로요

**칠**레 안토파가스타 선교부의 선교사였던 나는 동반자와 함께, 한 젊은 여성과 그녀의 여덟 살 난 남동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두 번째 토론을 할 때 그녀의 남동생은 같은 또래 친구인 데이비드 마틴을 초대했다. 데이비드는 아직 어렸으며 글을 읽을 줄 몰랐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주의 깊게 쳐다보며 열심히 이야기를 들은 후, 몰몬경을 한 권 달라고 했다. 동반자와 나는 서로를 흘끗 쳐다보았다. 데이비드는 글을 몰랐으므로 우리는 몰몬경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데이비드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다. “장로님, 저에게 몰몬경을 언제 주실 건가요?” 우리는 여전히 그에게 몰몬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므로 데이비드에게 몰몬경을 줄 두 번째 기회도 지나쳐 버렸다. 어쨌든 그 아이는 이제 겨우 여덟 살이었다.

그 젊은 숙녀와 남동생에게 세 번째 토론을 가르치러 갔을 때, 데이비드는 또 그곳에 와 있었다. 토론이 끝나자 그는 이번에는 약간 화가난 목소리로 또 물었다. “그런데 제 몰몬경은 어디 있는 거죠?”

나는 그 아이를 쳐다보며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웃으면서, 그에게 몰몬경을 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했다. “데이비드, 너는 아직 책을 읽을 줄 모르잖니.” 그는 시무룩해졌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부모는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네 부모님은 읽으실 수 있을 거야. 집으로 가서 말씀드려 보자.”

데이비드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서 짱총깡총 뛰었다. 그리고 우리를 집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 돈 아스테미오, 어머니 마리아, 둘 다 열 한 살인 누나 마카레나와 발레스카, 그리고 데이비드보다 한 살 위인 형을 만났다.

마린스 가족은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한때 훌륭한 운동

데이비드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다. “장로님, 저에게 몰몬경을 언제 주실 건가요?”

선수였으나 7년 동안 파킨슨 병으로 고생해 왔으며 최근 2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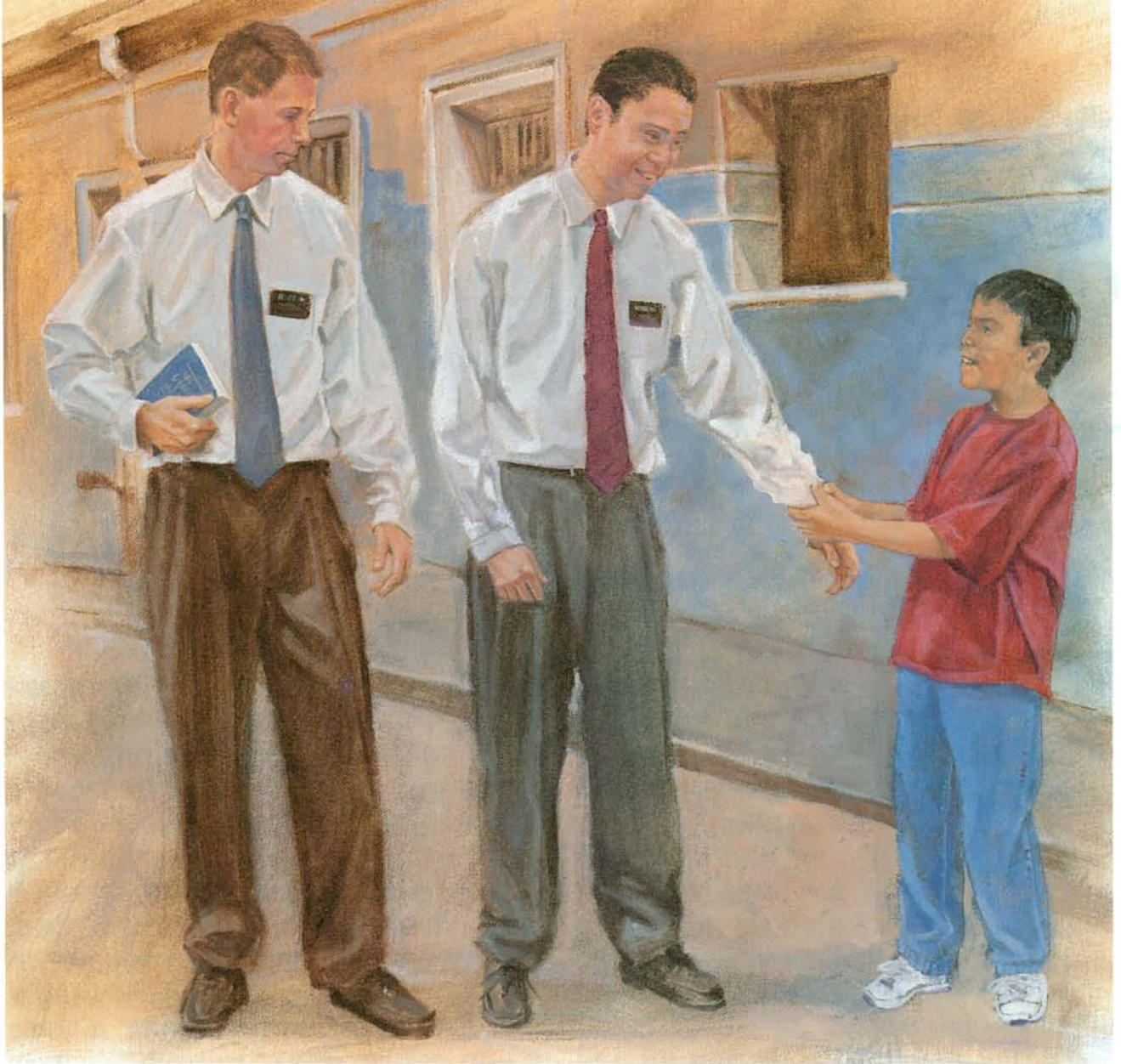
토론을 마치고 나서 데이비드, 마카레나, 그리고 발레스카는 침례를 받았지만 돈 아스테미오는 병 때문에 침례를 받지 못했다. 그의 아내 마리아도 침례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족을 방문했다. 하루는 돈 아스테미오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침례를 받은 후에는 제 병이 나아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의 신앙이 커졌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침례를 받고 나서도 견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침례가 영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체적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달려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동반자와 내가 한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례를 받은 후에 견게 되리라고 계속 확신했다.

그날 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나는 특별한 평안함을 느꼈다.

다음날, 돈 아스테미오는 자리에서 겨우 일어섰다. 그는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건을 수 없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2층까지 꽤 긴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돈 아스테미오가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 마침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회원들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돈 아스테미오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그에게 큰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의 몸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혼자서 설 수 없었다.

침례식이 끝난 뒤 우리는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침대에 눕고 싶어하지 않

았으며 안락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그를 보기 위해 잠시 들렀다. 집으로 다가가면서 우리는 어린 데이비드가 집 밖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 돈 아스테미오가 그의 아들과 함께 뛰며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내 눈 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분의 큰 사랑에 감사를 드렸다. 2주 후에는 마리아가 침례를 받았다.

돈 아스테미오가 병 고침을 받은 것과 같은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주

님께서 그의 가족을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동반자와 나는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어린 데이비드를 계속 지나치려 했으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 주님께서는 이 어린 소년을 통해 온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리라는 것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가족이 도움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

세르지오 아로요는 칠레 산티아고 누노아 스테이크, 로스 프레지덴테스 와드의 회원이다.



#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 생각에 교회에서 이런 모임은 유례가 없었던 듯 합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미심쩍은 마음으로 여기 오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기대를 갖고 오셨

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언변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드려 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홀 이외의 장소에서도 수 십만 명이 우리와 함께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훌륭한 기회에 대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90이 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저는 이 교회의 청남 청년들을 참으로 사랑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훌륭한 그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모두 훌륭한 가족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자의 문제가 있고, 힘들고 걱정스러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하는 개인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려운 결정으로, 또 화평과 행복을 가져올 꿈과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약이나 위

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마치고 졸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 시절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몹시 어려웠습니다. 저는 생계를 꾸려 갈 일에 관해 걱정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로 시카고까지 가서 버스로 갈아타고 도시를 가로질러 다시 뉴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국으로 가는 증기선을 탔습니다. 시카고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한 여인이 운전사에게 묻더군요.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이죠?”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저 건물은 시카고 상공 회의소입니다. 매주마다, 재산을 잃은 누군가가 저 창문들 중 하나에서 뛰어내리지요. 그 사람에게겐 더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시절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숙한 인생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공부에 대해 걱정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염려합니다. 많은 일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끄는 대로 그분의 길을 걷는다면 주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은 위대한 기회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는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와 도전이 존재하던 때는 인류 역사상 어느 시기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당시 미국과 서방 세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0세였습니다. 지금은 75세가 넘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1910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적어도 평균 25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 감사하십시오

청소년과 청년들이 슐트레이크시티의 컨퍼런스 센터 밖에서 노년의 모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또한 지식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좋은 의약품들은 최근에서야 발견되고 개량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던 큰 질병들의 일부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천연두는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이제 그 질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적입니다. 소아마비는 한때 모든 어머니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린 한 분을 방문하러 시립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폐를 뛰게 하는 커다란 철제 인공 호흡 장치 속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

는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 두고 사망했습니다. 이제 그 끔찍한 질병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다른 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문제들에 당면합니다. 이 지구에 살았던 모든 세대마다 도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도전들에 대해 오늘 저녁 내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세대가 마주했던 그 모든 문제들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매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대개 개인





# 지식을 쌓으십시오

의 행동에 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정들을 내려야 하며 또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학생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회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를 바라며 여러 과목들에서 “수”를 받고자 하는 큰 꿈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교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관대해 지셔서 여러분이 좋은 성적과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 제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수”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저는 “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수”를 받으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우”를 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3.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4.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5.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6.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우”로 시작되는 말들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되풀이해 보고 그것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봅시다. 준비되었습니까?

1.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3.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4.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5.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6.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첫번째 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영어에는 다른 모든 말보다 많은 의미를 지닌 짧은 두 마디 말이 있습니다. “땡 큐”라는 말입니다. 다른 언어에도 그와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라시아스, 메르시, 당케, 오브리가도, 도모.*

감사하다고 말하는 습관은 그 사람의 지성을 나타내 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59:21 참조)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훌륭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놀라운 기회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그토록 잘 보살펴 주시고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게 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어느 면으로든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여러분을 선으로 대하시는 주님께 감사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이 지상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사랑하는 아





**필리핀 카인타 스테이크의 타이타이 제1와드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인터넷으로 노변의 모임을 시청하고 있다.**

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해 존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훌륭한 모범과 놀라운 기르침, 일으켜 세우고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에 감사하십시오. 무한하신 속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전서와 물론경 니파이삼서에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조용히 읽고 보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 꿇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십시오.

무릎 꿇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이 시기에 그분의 훌륭한 교회를 회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밤과 낮을 인도하고 축복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 **우리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경쟁이 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모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희생하십시오. 세상의 일을 하는 데 자격을 갖추기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치만큼 보상할 것이며,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유능해진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생각과 마음과 손을 교육하라는 명을 받았습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 하늘의 일과 땅과 땅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

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 국내의 일과 외국의 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국민간의 갈등, 지상에 임할 심판 및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도 배우게 되리니” 모든 일에 여러분을 준비시켜 두려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8:78~80 참조)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생각과 손을 훈련시키고 이 세상을 살아 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명예롭고 훌륭하게 일을 수행할 때, 여러분은 교회를 영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유능하며 양심적인 일꾼으로 대우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해 지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전에 덴버에 있는 한 철도 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교통 전파 중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저지 주 뉴어크 사무실에 있는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번 몇 번 열차가 막도 착했는데 수하물 차량이 없어요. 300명쯤 되는 승객들이 짐을 잃고 대단히 화가 났어요.”

저는 즉시 회사로 가 수하물 간의 행방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화물 차량이 짐을 제대로 싣고 캘리포니아 주 오글랜드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화물차량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선로를 바꾼 뒤, 덴버를 거쳐 푸에블로까지 갔고 그 곳에서 다시 한 번 철도선을 바꿔 세인트루이스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그 짐은 선로를 이동해 뉴어크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 철도 기지에 있는 한 부주의한 직원이 작은 손잡이를 약 7.5센티미터 가량 잡아 당겨 움직였고 화물칸은 본체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뉴저지 주 뉴어크에 가 있어야 할 화물 차량이 목적지로부터 2,400킬로미터나 떨어진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 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기지의 한 부주의한 직원이 스위치를 7.5센티미터 움직인 일로 차량은 잘못된 선로를 탔으며 결국 원래 목적지로부터 엄청나게 먼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꾸준하게 계속 나아가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한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을 때는 별 것 아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인다면 결국 간격은 크게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가고자 하는 곳으로부터 멀어





# 깨끗 하십시오

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5미터 높이의 큰 농장 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넓은 반경을 그리며 열립니다. 경첩 부분은 극히 조금 움직이지만 그 문이 그리는 반경은 대단히 넓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유능해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두뇌와 손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두뇌와 숨씨가 숙련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야를 선택했든, 그것이 냉장고를 수리하는 기술이든, 유능한 외과 의사의 일이든 간에, 자신을 숙련시켜야 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훈련으로 인해 여러분은 교

회에 영예를 가져올 것이며 자신 또한 크게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1997년 현재]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학위가 없는 사람의 연봉은 16,000달러가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연 평균 수입이 22,895달러가 약간 넘었습니다. 교육 정도가 차이가 날수록 사람의 일생도 그렇습니다.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그 해의 연봉은 40,478달러였습니다. 국제 조사에 따르면,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연봉은 국민 연 평균 수입인 20,000달러를 훨씬 넘는 63,229달러였습니다. (유타 비즈니스, 2000년 9월호, 37)

교육 정도에 따라 수입이 다르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교육 받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학업을 중단하면 계속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 진실하십시오

에 가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 더러운 독이 여러분을 다치게 해서 안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피하십시오. 저속한 것을 묘사한 비디오를 빌려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신권을 더러운 것과 혼합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악한 이야기를 피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시내산의 천둥소리 속에서 주님의 손가락이 돌판 위에 그렇게 적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출애굽기 20:7)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는 바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 아닙니다.



사진 촬영: 웨인 실츠기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노년의 모임을 시정하기 위해 모인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선교사들.

세 번째 우,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 지십시오. 우리는 더러움과 추함이 가득한 세상, 사악함이 악취를 풍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옵니다. 영화에도 나옵니다. 유명한 문학 작품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



친구를 신중하게 사귀십시오. 여러분을 한 길에서 다른 길로 이끄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친구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친구를 따라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는 반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일 때 그들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 또한 그들을 구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십시오. 파괴적인 오락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최근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이동 공연단이 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추악하고, 선정적이고 모든 면에서 사악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이 입장료로 25불에서 35불씩 냈습니다. 그 돈을 내고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삶의 추악한 것들로 이끄는 유혹의 소리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러한 것에 가까이 가지 말도록 간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입힐 뿐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 분들과 문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신체보다 더 숭고한 창조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존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 전서 3:16~17)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거룩하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그러한 창조물에 사람이나 짐승 모양, 글씨 등을 새겨 넣어 그 가치를 떨어뜨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신을 새겼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문신은 씻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것입니다. 비싼 경비를 들이고 고통을 겪어야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신을 하면, 평생 그것을 지니고 살

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될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문신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형제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몸을 그같이 경시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귀걸이와 신체의 다른 부분에 거는 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남자답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귀걸이를 하지 않은 모습이 더 멋져 보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귀에다 고리를 줄줄이 달 필요는 없습니다. 단정한 한 쌍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의 청년의 모습은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딸로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단정한 차림의 청년은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문신이나 귀걸이 또는 신체의 어느 곳에 다는 고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한 목소리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저는 외설물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백억 달러 규모의 산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수 백만 명을 희생시켜 부자가 됩니다.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망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각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욕구를 갖게 될 것이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과 채팅 룸을 통해 교제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슬픔과 비통의 심연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저는 불법적인 약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살 돈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게 됩니다.

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마약 사용자의 20퍼센트가 부모로부터 배워 약물 복용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모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노





# 겸손 하십시오

에가 되는 것 이외에 그들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불법적인 약물은 그것에 중독되는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킬 뿐입니다.

훌륭한 청남 청녀 여러분에게 제가 권고하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변을 보고 마약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십시오. 말일성도 청남 청녀 여러분은 그것을 시험해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신을 마비시키고 습관성이 되게 하는 중독으로부터 물러나 깨끗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다니엘 로사스 엘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힝클리 대관장의 노변의 모임 말씀을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자 이제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 젊은이 여러분이 대처하기 힘들어 하는 문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여러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본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존 욕구만이 이 본능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훌륭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은 통제 받지 않으면 화약고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되면 아주 아름다우나 통제되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서는 이른 데이트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규칙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킨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단 한 사람하고만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은 종종 비극을 불러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년 소녀가 데이트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익한 시간을 보내되, 성적으로 친밀해지는 일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제자리에 그대로 놓아 두십시오.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가기로 계획하는 젊은이 여러분은 성적인 죄로 인해 선교 사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영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숨길 때 주님의 영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아 여러분은 이전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갈라하드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힘은 열 사람의 힘을 합친 것과 같다네. 이는 내 마음이 순결하기 때문이지.”(알프레드, 로드 테니슨, 갈라하드 경[1842], 제1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의 문제에 관한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대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잘못되기가 매우 쉬운지, 범법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기 매우 쉬운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조심하셔서 밑으로 떨어지기 쉬운 죄의 벼랑으로부터 안전하게 물러서십시오.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는 사악하고 어두운 성적인 범죄를 멀리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오는 평화의 빛 안에서 걸으십시오.

여러분 중 그 선을 넘어가신 분에게, 이미 범법을 하신 분에게도 희망이 있느냐구요?

물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여

러분의 짐을 부모님과 나누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감독님을 찾아가 고백하십시오. 그 분들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러면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과도 같이 그대는 누구에게도 거짓될 수 없으리라.”(헨릿, 1막 3장)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고귀한 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이 일이 진실함을 간증하며 목숨을 바친 수많은 개척자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내려다본다면 여러분께 간청할 것입니다. “진실하라. 충실하라. 우리의 선조들이 소중히 여겼던 신앙에 충실하고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쳤던 진리에 진실하라.”(찬송가, 141장 참조)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가졌던 거룩한 신앙에 영원히 충실하라!”

선조 때부터 교회 회원이 아니셨던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수 세대를 거쳐 충성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굳건해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숭고하고, 성취한 바가 놀라우며 고무적이고 영웅적이기까지 한 일을 하는 사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교회에 충실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건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러분을 결코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교회 회원인 여러분은 교회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제가 저의 영역에서 책임이 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역에서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저의 교회이자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침례의 물에서 스스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마다 여러분은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성약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기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때가 찬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회복해 주신 이 대업과 왕국의 회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신앙을 갖고 걸으십시오. 왜냐구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확신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여러분은 언제 올바른 일을 해야 할지 압니다.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의 권고를 듣기 위해 모인 청소년과 청년들로 컨퍼런스 센터가 꽉 차 있다.

여러분은 의로운 대의를 위해 언제 힘을 쏟아야 할지 압니다. 충실하십시오. 신앙을 가지십시오. 위대한 왕국에 있는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다섯째 우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교만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만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기심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성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지시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할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112:10) 사람들은 저에게 좋아하는 성구가 무엇이나고 묻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성구가 많습디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이 말씀에는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만과 거만과 교만이 없고, 겸손하고 순종심이 강하다면, 주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보다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와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산상 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5)

저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들은 삶을 인도해 주는 조용하고 작은 음성의 속삭임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를 따릅니다.

이제 마지막 “우” 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중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젊은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지니고 생활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여러분께 보이신 선하심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의로운 소망을 나타내십시오. 기적 같은 일은 그분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청남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것처럼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서간 모든 세대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몸과 마음은 부모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은 부모가 될 것이며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특성을 지닌 몸과 마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의 세대 간의 고리를 끊지 마십시오. 그것을 영광스럽고 굳건하게 간직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그만큼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교회는 지금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이 받은 유산에 대해 긍지를 갖고 깨끗하게 서십시오. 이해와 인도를 받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점잔을 빼며 앉아 있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명랑하기를 바라며 노래하고 춤추며 웃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지니십시오. 하늘이 여러분을 향해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결실을 거두고, 여러분의 봉사가 헌신적이고 대가 없이 바치는 것이며,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복지에 공헌을 하되 그 모든 것





# 기도하십시오

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충실하게 행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게 될 세상과 계속해서 전진하는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업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것들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우”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지식을 쌓으십시오, 깨끗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종으로서 오늘 저녁 온 세상 곳곳에 모인 이 젊은이들을 대신하여 당신 앞에 머리 숙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미소를 보내 주옵소서. 그들이 당신께 소리 높여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친절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의의 길을 견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행복하게, 때로는 진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삶을 즐기고 인생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로서 당신 앞에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위대하고 숭고한 일을 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곧은 길로 계속 걸어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실수들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범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들에 대해 감사드리며 겸손하게 이 축복들을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당신의 축복을 내리시기를 우리의 죄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알빈 로트릭 :

# 한 영 훈 의







그는 이국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이었다. 단지 3개월만을 그 곳에서 보낸 후에 아직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에 대해 알기 위해 누군가가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을까?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선교사들이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을까?

# 가 치

마빈 케이 가드너



알빈 로트릭은 노르웨이에서 일하며 지난 삼 개월을 제외하고 평생을 슬로베니아에서 살았다. 그 삼 개월로 인해 그의 인생이 바뀌었으며 슬로베니아에는 교회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알빈은 유럽 발칸 반도의 줄리안 알프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1963년에 태어났다. 그 당시 슬로베니아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일부였다. 그의 부모님은 공장에서 일했으며, 작은 가족 농장을 운영했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가르쳤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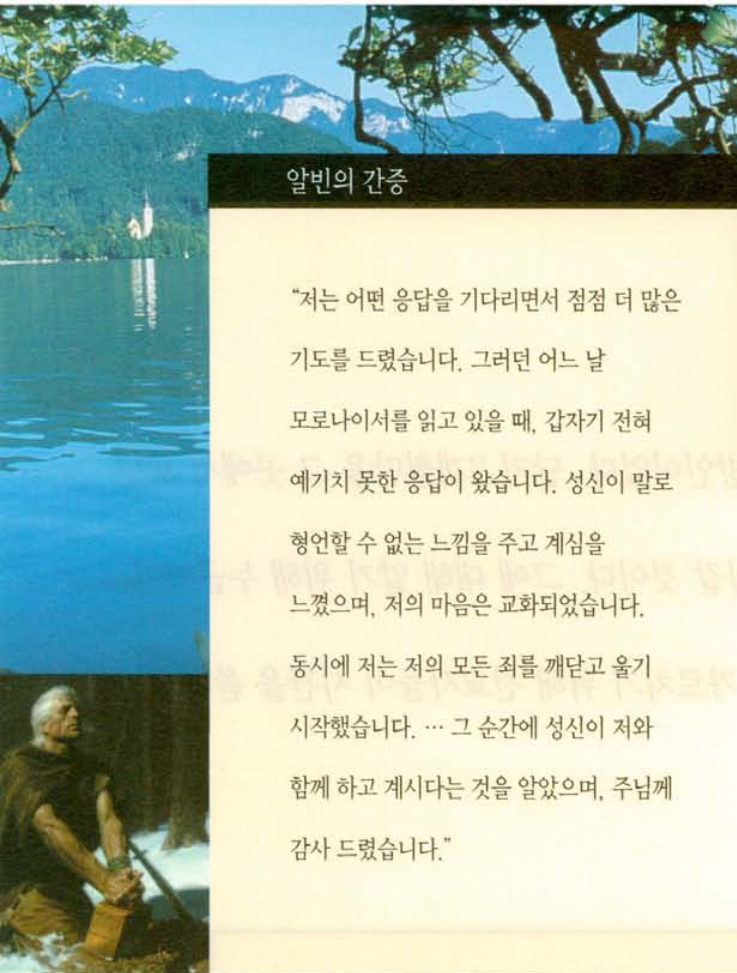
그는 유고슬라비아 군대에서 15개월 간의 군 복무를 해야 했으므로 직장을 중단해야 했다. 군대에서 그는 “좋고 나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한다. “그 곳에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오직 지시 받은 일만 하도록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오직 제 자신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정이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알빈은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었으나 늘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왼쪽 페이지: 알빈 로트릭(삽입 사진)은 외국 땅에서 복음을 알았고 그것을 조국 슬로베니아에 전했다.(배경 사진)







## 알빈의 간증

“저는 어떤 응답을 기다리면서 점점 더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로나이서를 읽고 있을 때,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응답이 왔습니다. 성신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을 주고 계심을 느꼈으며, 저의 마음은 교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저의 모든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 그 순간에 성신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며, 주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이 주긴 했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랬다.

며칠 후에 선교사들은 그의 집을 방문했고 영어로 쓰여진 물문경을 주었다. 그들은 나중에, 그가 읽을 수 있는 크로아티아어로 된 물문경도 주었다.(그때까지만 해도 슬로베니아어판은 없었다.) 알빈은 선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거의 매일 기도했지만, 그것은 카톨릭 교회에 다닐 때 배운 기도로서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같은 말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교회가 참되다고 믿지 않았지만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비록 물문경의 이야기들은 흥미로웠지만 책을 읽는 동안 어떤 영적인 간증도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스타벤저 지부에 참석했지만 처음에는 편안한 느낌을 가지지 못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좋아했고, 회원들은 그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그들은 제게 무척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어디서 왔으며 그 도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으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또 오라고 권유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 곳에 갔을 때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물문경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겠다는 동기 부여를 더욱 강하게 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떤 응답을 기다리면서 점점 더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로나이서를 읽고 있을 때,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응답이 왔습니다. 성신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을 주고 계심을 느꼈으며, 저의 마음은 교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저의 모든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성신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며,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알빈은 1989년 8월 19일, 스물 여섯 번째 생일에 침례를 받았다. “6월에 노르웨이를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

못했다. 알빈은 대학에서 전산 정보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소위 우리가 재미있다고 여기는 일들을 했죠. 이 곳 저 곳을 배회하며, 술을 마시고, 우리가 만난 여자와 시시덕거리고 다니는 일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마음이 공허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그는 전에 잠깐 알고 지내던 젊은 여성 보자 가트너를 만났고,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1989년 6월에 그는 노르웨이의 스타벤저에 있는 한 회사에서 삼 개월간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국제 직업 훈련 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노르웨이로 간 알빈은 인턴 사원으로 연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몇 주 뒤에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책을 들고 있는 한 청년이 거리에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어로 뭔가를 이야기했고 그 책은 노르웨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으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그 책을 가져갈 생각이 없다고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라고 알빈은 말한다. 놀랍게도 그 선교사는 미국인이었고 영어로 대답하며 영어 물문경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알빈은 공손하게 그 선교사에게 주소를 적





어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제 영혼은 깨끗해졌으며, 저의 죄는 용서 받았고, 전과는 다른 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와 안전을 느꼈습니다.” 그는 또한 고향에서 그가 맡게 될 영적인 책임에 대해 성신이 속삭여 주는 것을 느꼈다.

슬로베니아에는 아직 교회가 들어가지 않았으며, 교회 회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노르웨이에서 남은 몇 주 동안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해서 교회 모임과 가정의 밤, 그 외 다른 활동에 참석했고, 아론 신권을 받았으며, 선교사, 회원들,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토론을 하고, 영어로 된 교리와 성약을 읽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혼자라는 사실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자 친구와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계속해서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당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부는 슬로베니아에 있는 알빈의 집에서 세 시간 거리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있었다. 나중에 그는 채 한 시간이 안 되는 거리인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에 지부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비록 독일어를 잘 못했지만 일년 이상 매주 일요일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지부에 참석했다. 그는 “지부장님과 회원들 모두가 매우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알빈은 클라겐푸르트 지부에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처음으로 교회 부름을 받아 봉사했다. 그리고 그의 여자 친구인 보자도 가끔 그와 함께 교회에 갔다. 자매 선교사들은 그녀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간증을 얻는 데 거의 육 개월이 걸렸어요.” 보자가 말한다. “몰몬경이 슬로베니아어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어로 된 몰몬경을 읽는 일이 매우 힘들었죠. 1990년 어느 일요일, 저는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려 가까운 숲속으로 갔어요. 바로 요셉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기도하는 도중 놀라운 따스함이 마음을 감쌌고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햇빛 때문에 따스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해는 진 후였어요. 그래도 그 따스한 느낌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화평을 느꼈고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빈은 1990년 3월 클라겐푸르트 지부에서 그녀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 해 12월, 두 명의 선교사가 슬로베니아에 처음 입국했고, 곧 그 나라에서 첫번째 침례가 있었다. 1991년 여름, 슬로베니아는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10일 간의 치열한 전쟁이 있던 후, 모든 일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몇 달 후인 1991년 12월 22일, 슬로베니아에 첫번째 교회가 조직되었으며 알빈 로트릭은 지부장이 되었다.

다음해인 1992년 7월에, 알빈과 보자는 슬로베니아에서 결혼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에서 인봉 받았다. 슬로베니아에 사는 사람들 중 처음으로 인봉을 받은 부부였다. “아내보다 더 훌륭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알빈이 말한다. “아내는 사랑과 격려를 통해 제게 힘을 줍니다. 성전에 함께 가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 다시 배우고 함께 영원한 결속을 맺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한 시각을 형성해 줍니다.”

그들의 세 자녀들은 성약의 자녀로 태어났다.



### 보자의 간증



1990년 어느 일요일, 저는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려 가까운 숲속으로 갔어요. 바로 요셉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기도하는 도중 놀라운 따스함이 마음을 감쌌고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화평을 느꼈고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1993년 4월생인 리 마티나, 1995년 1월생인 플로라 엠마, 1996년 11월생인 베냐민 루카가 그들의 자녀들이다. “아내

녀들이 그들의 단순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고 있다.

### 슬로베니아에 있는 교회



**1991년**

슬로베니아에 첫번째 교회가 조직되었다. 알빈 로트릭은 지부장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1992년**

알빈과 보자 로트릭은 성전에서 인봉 받은 첫번째 슬로베니아 부부이다. (왼쪽에 함께 있는 사람은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와 부인 리엔 시 노인슈안더 자매이다.)



**1993년**

마티아즈 주하르트는 슬로베니아에서 부름 받은 첫번째 전임 선교사이다.

**1998년**

레온 바간트(왼쪽, 아래)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사이클 선수직을 중단했을 때 언론은 그를 주목했다. (“그는 아직도 사이클 선수이지만”,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26~28쪽 참조)

**1999년**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선교부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우스 선교부에서 분리되어 조직되었다.

**2001년**

*리아호나*가 슬로베니아에서 출간되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알빈이 말한다. “저는 교회에 충실하고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이 축복에 보답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슬로베니아의 교회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므로, 로트릭 지부장 부부와 그 외 개척자 성도들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로트릭 자매는 보조 조직에서 봉사하며 슬로베니아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로트릭 지부장은 칠 년 간 지부장으로 봉사한 후, 1998년 4월에 현 직책인 슬로베니아 지방부장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 해에 걸쳐 그는 국가 공영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과 잡지,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를 대표했다.

그러는 동안, 직업에 관련된 그의 경

력은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그는 경영학과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현재 슬로베니아 재무부의 정보 기술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직장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료들 대부분이 그의 생활 방식과 신앙을 존경한다. “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려면 회원들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저는 경험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들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와 저는 자녀들의 마음 속에 복음 중심적인 삶의 씨앗을 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올 어려운 일들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라고 알빈은 말한다. 그들의 자녀들은 슬로베니아어로 번역된 그림 물문경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의 밤 시간과 경전 공부 시간에 복음을 배우고 있다. 알빈과 보자는 자

슬로베니아에는 하나의 지방부가 있고, 류블라나, 페르예, 마리보르 지역에 각각 지부가 한 개씩 있으며 회원은 약 200명 정도이다. 슬로베니아 교회의 미래에 관해 로트릭 지방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성도들이 이 나라에 장미꽃처럼 피어날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마리보르

슬로베니아

페르예

류블라나

크로아티아





로트릭 부부의 자녀들, 베나민, 리, 플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다. 보자와 알빈은 그들과 신앙을 함께 나누고 미래에 대비해 자녀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 있습니다.”라고 알빈은 말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의 하나는 슬로베니아어판 몰몬경을 출판하기 위해 번역 팀에서 봉사한 것이다. 책은 곧 완성될 예정이다. “몰몬경이 그 신성함과 권능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늘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인간의 자녀들에게 드러났으며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이름은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없다는 것을 영은 슬로베니아 백성들에게 더욱 강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1999년 7월, 알빈이 침례 받은 지 거의 10년이 되었을 때, 전 유고슬로비아에 속했던 많은 나라들을 포함하는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슬로베니아에만 이백만 명의 인구가 있고, 그 중 200명이 교회 회원이다. 슬로베니아에는 지방부가 하나 있고 류블라나, 쩌르예, 마리보르 지역에 각각 지부가 한 개씩 있다. 지역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새로운 개종자들과 우정 증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부부들

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고 있고, 슬로베니아 출신의 젊은 남녀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슬로베니아 회원들은 지금 그들의 언어로 된 *리아호나*를 받아 볼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 나라에 장미꽃처럼 피어날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로트릭 지방부장은 말한다.

이국 땅에 있던 이방인에게, 그것도 그가 삼 개월이면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가 되어 주고 시간을 들여 복음을 가르칠 가치가 있었을까?

“우리 주님의 방법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제게 복음을 알려 주시기 위해 놀라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라고 알빈 로트릭 지방부장은 말한다. □



# 리아호나

## 2001년 4월호 활용하기

말씀, 반 공과, 가정의 밤 공과, 또는 세미나리 영적인 모임을 위해 사용할 이야기나 인용문을 찾고 계십니까? 이번 호 *리아호나*에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는 이번 호의 쪽을 나타냅니다. 친=친구들)

###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토론 제언

■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전세에서의 성역”, 닐 에이 맥스웰 장로, 4쪽: 아버지의 지시 아래, 예수 그리스도는 수없이 많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십니다.(마태복음 10:29 참조) 우주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현세에서의 성역”, 엘 톰 페리, 9쪽: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구세주를 공경한다. 일본에서 교회 건물들을 재건한 것에 관한 페리 장로의 이야기를 읽는다.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 내세에서의 성역”,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19쪽: 힝클리 대관장은 성스러운 숲 속에서 예언이 담긴 그의 간증을 전하셨다. 첫번째 시현에 관해 말한다. 첫번째 시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져온 변화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 이번 호의 주제들

가정 복음 교육 .....	7
가정의 밤 .....	48
간증 .....	2
개심 .....	26, 42, 친6
기도 .....	26
마다가스카르 .....	친6
방문 교육 .....	25
범세계적인 교회 .....	42, 친6
병 고침 .....	26, 친6
부활절 .....	친2
사도 .....	6, 친10
슬로베니아 .....	42
신앙 .....	25
신약 성서 이야기 .....	친10
십일조 .....	26
역경 .....	26
연차 대회 .....	친4
예수 그리스도 .....	2, 25, 친2, 친10
예언자 .....	친4
첫번째 시현 .....	친9
초동회 .....	친4, 친14

### 청소년란 기사를 모집합니다

청소년 독자 여러분들께 복음을 나누고 생활하며 얻은 경험담이나 주님께서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이야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야기들을 보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사를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84150-3223, USA; 전자 우편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성명, 나이, 주소, 전화 번호, 와드와 스테이크(또는 지부와 지방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사이먼 듀이, 사람을 낚는 어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 형제 인드레가 바다에 그를 단지는 것을 보시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좃으니라"(마태복음 4:18~20)





“이 일을 하도록 그분으로부터 권능을 위임 받은 사도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분이 살아 계시고, 다시 오셔서 왕국을 주장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리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쪽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참조.



4 15219 84320 9  
21984 320